



이대우 | 풍수조경가·분회 대의원

## 풍수 지리와 명당

문화관광부는 지난 7월 26일, 우리 민족의 문화적 원형으로서 상징성을 지니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우리 민족 문화의 유전자로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100대 민족 문화 상징을 다양한 문화요소 가운데서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경관적 상징 요소로 「풍수(風水)」가 포함되었다. 이를 보고 풍수 지리를 미신처럼 치부해 온 많은 이들이 관점을 달리했으리라고 본다.

풍수 지리가 이처럼 우리 민족 문화 정신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없이 한갓 미신으로 치부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풍수 지리는 본래 고대 중국에서 황룡혈처를 찾는 음택풍수에서 비롯되어 점차 주역과 음양오행 이론을 더하여 양택풍수로까지 범위가 넓혀졌다. 이것이 지리적 여건에 따라 한국에서는 음택풍수가 일본에서는 양택풍수가 풍수의 주류가 된 것이다.

뗏자리를 찾는 음택풍수가 풍수 지리의 전부인양 인식되면서 명당 풍수 길지를 잡는 것은 곧 「발복의 시발」로 여기는 사고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나치리만큼 음택풍수로 길흉화복을 우선하다 보니 적지 않은 사회적 폐단과 민폐가 도를 넘어서게 되고, 결국은 숙종대에 풍수를 금하

는 조치까지 취해지게 되었다.

풍수 지리가 기복사상(祈福思想)으로 변질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풍수 지리는 우리 민족 문화 원류에 깊숙이 자리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엔 진정 기여해야 하는 지금이 참다운 풍수 지리가 생활풍수로 뿌리내릴 수 있는 좋은 시점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풍수 지리의 본질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이다. 우주 만물의 원리에 순응하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며 하늘과 땅, 땅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간의 순리를 추구하고 있다. 삼라만상 산천 정기의 기운이 생동하고 인간이 그에 동화되어 우여일치(宇如一致)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 순행하는 모든 자연의 흐름을 중시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살펴 따르고자 하는 것이 풍수 지리사상이다.

하늘의 흐름·산의 흐름·바람의 흐름·물의 흐름의 기맥(氣脈)을 찾아 그것을 요해(了解)하고, 인간의 흐름에 맞춰 따르려 하는 것이 풍수 지리의 요체가 되는 것이다.

풍수 지리라 하니 바람과 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듯이 보일지 모르다. 그러나 실은 산천 정기를 품고 있는 바람길·물길·사람길을 확보하고 그 흐름이 자연에 순응·조화하면서 오행의 기가 바르고 온순하게 흐르도록 해, 천지인 합일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대상이 된다.

생기(生氣)는 바람에 들어지기 쉬우므로 바람으로부터 깊숙이 감추어져야 하고, 물을 얻어야만 더욱 왕성하게 된다는 것이 풍수의 줄임말인 장풍득수(藏風得水)의 기본 원리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태(母胎)를 상징하기도 한다. 모태(母胎)는 인간에 있어 가장 편안하고 영원한 안식처인 것이다.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 땅으로 간다고 하듯이 풍수 지리사상은 음양의 조화와 모태사상(母胎思想)과 숭조·친효사상(崇祖·親孝思想)을 근거로 하고 있다. 모태사상은 양이 음인 모태에 있다가 양으로 태어나 다시 음인 모태로 들어가 그 기운이 후손에게 전달되는 순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죽어 묻히는 것도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편안함에 이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조손간의 유대·번성을 오래도록 지속하고자 하는 염원도 담고 있다.

국어사전에 명당자리라 함은 ‘씩 좋은 장소나 지위의 비유, 풍수학에서 나온 말로 그 자리에 묘를 쓰면 후손이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자리’라고 하였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명당과 묘(墓)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산소를 명당이니 아니니 하면서 구분없이 사용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명당’은 오히려 ‘명지(明地)’와 유사한 개념으로 광의적(廣義的) 공간 특성의 의미를 나타낸다. 혈을 포함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사격(砂格)을 갖춘 특수한 형태의 공간을 한정해 이르는 말이다.

혈을 명당이라 표현함은 협의적(狹義的) 공간 개념으로 인식되나, 명당이라기보다는 명혈기처(名穴氣處)가 옳다. 명혈지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 영적(靈的) 힘이 모인 것과 같은 지기(地氣)가 응결된 곳이다. 따라서 명혈은 명당자리에 자리 잡은 결기(結氣)터이다.

명혈기처는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공동체가 집단으로 취할 수 있는데, 혹여 취해야 할 곳이 집단 공동체의 시설이 입지해야 하는 경우라면 개인적인 사리사욕보다는 공동선(共同善)의 추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명당혈처는 양택에 있어 작게는 집터의 본체를 이르고 크게는 대단위 단지나 읍·도시 규모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들어서는 자리를 이르며, 음택에서는 망자와 영면하는 천장지처인 혈장을 이른다. 옷이 날개라 하듯 명당 명혈지처는 산천 정기가 응결된 곳인 만큼 그 나름의 풍수격국을 갖추고 있다.



강원도 영월의 단종대왕릉인 장릉(莊陵). 천하의 명당명혈지처 중 하나로 명당풍수 관산의 전범(典範)이 되고 있다.

기상을 관측하여 천문의 변화를 헤아리는 것은 관상(觀象)이고, 사람의 얼굴이나 외양의 인상을 보고 성질·됨됨이·운명을 헤아리는 것은 관상(觀相)이다. 그러나 똑같이 헤아리는 것이라 해도 그 대상이 자연이라면 표현을 달리하는데, 자연의 지상(地相)을 살펴 명당결혈 여부와 길흉화복을 예견하는 것을 명당 풍수관산(明堂風水觀山)이라고 한다.

이는 천(天)·지(地)·인(人)의 삼위일체(三位一體)를 통한 참 진(眞)의 형국을 관산하면서 찾아

보기 위함이지, 천자천(天自天)·지자지(地自地)·인자인(人自人)·산자산(山自山)·수자수(水自水) 식으로 외형만을 보는 데 있는 것은 아닌 만큼 단순한 자리에 비중을 두어서는 안된다. 덧붙여 유의할 것은 명당을 써서 발복하겠다는 욕심만 앞세우면 아무 효험도 없는 것이 명당의 기운이라는 점이다.

길국의 명당 보국처는 풍수 지리의 문외한이라도 가서 보면 명당 명지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러나 명당 보국처는 사실 자연이 감추고 있는 은장지지처(隱藏之地處)이다. 예로부터 '명당명혈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고 했다. '좋은 터의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말은 '임자는 하늘이 접지한다'는 뜻이다.

고서에도 '천장지비대길인(天藏地秘大吉人)'이라고 하여, 명당대지는 하늘이 감추고 마땅한 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내 자신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하다 해도 내 마음으로 하늘과 땅을 어찌하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명당은 재덕(在德)이요 대지는 천복(天福)이니, 적선지가(積善之家)는 필유여경(必有餘慶)하리라."는 말도 이에 해당한다. 3대의 적덕을 쌓고 지안을 갖춘 명지사를 만나 은장지지처를 찾을 때 비로소 명당 명혈처의 득지(得地) 3요소가 성립되고, 명당의 기운이 그 효험을 발하게 된다.

명당 지지처는 천리(天理)·지리(地理)에 순응하고, 인리(人理)를 다하고자 부단히 노력할 때 바로 얻어지는 것으로, 바로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산성 성벽의 괴암(怪岩)  
정자라도 세워질 법한 강한 결기가 된 혈처에 신묘하게 자리하고 있다.

#### ▣ 약력

- 국토개발(조경·도시계획)기술사
- 송현 R&D 부설 서문풍수조경연구소 소장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본사 이전추진 자문위원

#### ▣ 저서

- 「한국생활풍수와 조경」·「명당풍수와 조경수목」(일진사, 2006) 외 다수